대 불 광

법공양 페이지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신설했습니다. 신설 법공양면은
*····본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16
*····면)과는 별도로,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불심과 예술혼이 만나는 '열린 공간'

대불광 출품 작가

▲오운용
· 문화재 수리기능인
· 출품작:포대화상(괴목나무) 지장보살(〃) 미륵반가사유상(괴목나무·채색)
· 연락처:경남 김해군 대동면 예안리 시례 807번지 (0523-84-6177)

▲정호석
· 문화재 수리기능인
· 출품작:동자상 세트(괴목나무) 법상 경상, 12지상조각
· 연락처: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510-19 (051-204-3900)

▲조병현
· 문화재 수리기능 조각공
· 출품작:나반존자 목송(은행나무), 불감(물배나무)
· 연락처: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492-28 (051-202-4838)

▲이희옥
· 청원스님, 문화재 수리기능인
· 출품작:동자상(동) 동지, 동녀(홍송)
· 연락처:부산시 감서구 대저2동 1858번지 3통1반 (051-972-3912)

▲이상철
· 문화재 수리기능인
· 출품작:관세음보살상(은행나무) 지장보살1상
· 연락처: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시영아파트 13동 303호 (051-782-1445)

▲김대현
· 문화재 수리기능인
· 출품작:포대화상(국산 향나무 1점 괴목 1점)
· 연락처:부산시 기장군 교리 271-5 (0523-362-2476)

▲안태수
· 목공예가
· 출품작:아미타불(은행나무) 경상(홍송) 불전함(수입목 알마사카)
· 연락처: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47-20 (051-201-0862)

▲김광열
· 문화재 수리기능인
· 출품작:금강역사(화강암) 포대화상(〃) 와불(〃) 코끼리(〃)
· 연락처:충남 논산군 광석면 광정리 611-5 (0461-34-0309)

▲남기설
· 문화재 수리기능인
· 출품작:지장보살(은행나무) 삼존불(괴목)
· 연락처:부산시 북구 덕천2동 305-38 (051-337-2137)

▲김익홍
· 문화재 전통조각회 회장
· 출품작:포대화상(회화)
· 연락처: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53-54호 (379-1307)

▲김태길
· 문화재 수리기능인
· 출품작:지장보살상
· 연락처:충남 공주군 계룡면 봉명리 383번지 (0461-857-1837)

▲서동식
· 조각가
· 출품작:관음보살상(은행나무)
· 연락처:서울 노원구 공릉1동 597-18 B02호 (949-1993)

▲윤수천
· 윤조각실 대표
· 출품작:관음보살상(입상 2점) 백의관음보살상
· 연락처: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713-3560)

▲김용섭
· 문화재 수리기능인
· 출품작:미륵반가사유상(동)
· 연락처: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오남리 736-12 (0346-552-3853)

▲이재순
· 문화재 수리기능인
· 출품작:석가모니불(화강암)
· 연락처: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40-15 (0346-63-5443)

▲김석현
· 조각가
· 출품작:문수동자상(목조)
· 연락처:서울 중랑구 묵1동 121-37호 (0346-571-9267)

▲이철승
· 보리수 불교미술원 원장
· 출품작:신중탱(회화)
· 연락처: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298-45 (738-4633)

▲진철문
· 한국불교조형연구소 연구위원
· 출품작:참선, 명상(동) 접시도자기
· 연락처: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근곡리 476 (0335-34-1002)

◇지난 1일 개원한 「대불광」의 전경. 조계사 앞길의 새로운 볼거리로 등장한 대불광의 입구에는 김광열씨의 석조각 금강역사 포대화상 와불상 코끼리상등이 전시돼 있어 지나는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국내 최초의 불교미술 종합 전시 공간인 「대불광」이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비중있는 작가들의 조각, 회화 작품들을 엄선해 상설전시하는 대불광은 불교미술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출품작가들의 대부분이 문화재 수리기능인 또는 불미전 입상자들이어서 '대불광'은 오늘의 불교미술을 한 눈에 관망할 수 있는 자리로서의 역할로 하게 된다. (문의:738-1117~8)

약도

인터뷰

관장 허 길 용씨

"秀作 전시로 불자 안목 높일 터"

"대불광은 다양한 불교미술품들을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대불광의 관장 허길용씨는 자신도 불교전문 조각가로서 '종합전시관'이 없었던 그간의 사정이 안타까와 이같은 종합 전시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단순한 전시 기능만을 하는 곳이기보다는 불교미술품과 감상자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란 신념으로 대불광을 개관했다는 것이 허씨의 얘기다.

"많은 작가들이 불교미술에 몸바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이 일반인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좁았던게 사실입니다. 대불광에는 작가들이 예술혼을 담아낸 수준급 작품들만 엄선해 전시할 계획입니다"

허씨는 자칫 기능 위주로 빠져들기 쉬운 불교미술을 폭넓은 대중화를 바탕으로 우리시대의 불교미술로 이끌어 가는 것도 대불광이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즉, 작가들의 예술적 기량이 충분히 발휘된 우수한 작품들을 전시함으로 불교미술에 대한 불자들의 안목 높히기 역할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또 허관장은 대불광을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하는 공간의 역할과 함께 불교미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불교미술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찰의 불사에 쓰이는 소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물론 사찰이 주요의 중요한 대상이긴 하지만 불교미술품과 사찰불사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대불광은 오늘의 작가들이 빚어낸 예술품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술성이 초월된 곳에서 신앙적 경배심도 우러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허씨는 한국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작가들의 안목과 감상자의 안목이 함께 성숙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한 안목 키우기의 한 공간으로 대불광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허씨의 심정이다.

허길용씨는 77년도에 제8회 불미전에서 조각 「천수천안관세음보살」로 종합상을 받았으며 80년에 문화재 관리국 조각기능보유자로 선발됐다. (태)

계간 「상상」 주관 제1회 상상문학상 수상작

성낙주 장편소설

"붓다 시대를 다룬 세계 최초의 본격문학"

차크라바르틴

'붓다'와 '차크라바르틴'은 다 같이 민중들이 기다리는 구세주이다. 민중을 정신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가 '붓다'라면, 고통스런 이 땅을 낙원으로 바꿀 정신의 왕이 '차크라바르틴'이다.

"차크라바르틴"은 불교라는 종교가 막 태동하고 발생하는 시간적·공간적 지점으로 내려가 그 본질을 탐색하고 있다. 석가족의 성자 고타마 싯다르타와 석가족을 멸망시켜 분족을 통일하려는 비유리 왕의 갈등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면서 '붓다(깨침)'와 '차크라바르틴(轉輪聖王)'이라는 형이상학에 도전하는 진지한 주제와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오늘날 신화와 설화에 대한 우리 문화계의 새로운 관심은 세기말의 삶이 파편화·무문화 되었다는 반작용인 동시에 삶의 정체성과 전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문화적 새움틈임을 반증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신화와 설화가 작품 전체에 녹아들어 있는 "차크라바르틴"은 분명 눈여겨 보아야 할 뛰어난 소설임에 분명하다.
'상상문학상, 심사평'

성낙주(수상작가)

'차크라바르틴'은 나를 이야기의 숲속에 빠뜨린 소설이다. 이토록 무궁무진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을 근래에 본 적이 없다. 이야기라면 지겨움도 함께 잊게 하는 커다란 나래를 가진 소설이라고 기쁨 반기를 선물이다. 정유자(소설가)

'차크라바르틴'은 근래 보기 드문 대작이다. 무신 우리 정신의 고향인 동양정신을 복원하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강한 이야기, 사서의 힘은 독자를 장엄감에 빠져들게 한다. 이인화(소설가)

전2권 각권6,800원 상권408면 하권444면

이문열 사색집
사색
평생에 겪어 단 한 번 만나게 될 운명과도 같은 벗!
값 5,000원

임철우 장편소설
그 섬에 가고 싶다
잔잔한 웃음과 투명한 눈물, 꿈의 언어들이 전편에 걸쳐 스며드는 아름다운 이야기
값 5,000원

양귀자 장편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100만 독자로부터는 공감을, 신화적자로부터는 예신상을 받으셨다는 평가를 받은 문제작 텍스트!
값 5,500원

기형도 유고집
짧은 여행의 기록
불에 살다간 시인의 일기, 편지, 소설, 기행문 등 내밀한 영혼의 불꽃나무!
값 5,000원

유시로 장편소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극소수의 독자들이 읽었지만 그 독자들로부터는 극찬을 받은 보석같은 소설
값 5,000원

도서출판 살림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86-4 전화(379) 4925, 4926 팩스(394) 3451, 3452

100년 전 한국의 모든 것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지음 이인화 옮김
화보 33면 하권 80×606면 값 12,000원
그런데이 읽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으로 번역이 나와 집에게 보다 소설처럼 읽히는 재미있는 아니라 이해 나 한 우리의 생활상을 꼼꼼하게 적어 나가는 작가의 관찰력에 일단 놀라움을 금할 수가 있었다. 박완서(소설가)
김치와 국제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도 놀라운 것이지만 우연하고 놀라운 것은 한국의 정치풍습과 예의의 생활 생명의 기쁨, 부녀의 궁핍 국신들의 개보 등 인중상황에 관한 생생한 그 세상의 관찰이다. 정양모(학자)
불과 100년 전의 시간 공동 지점 생활들에 이제면 우리는 뭐 함께 무리할 수 있을까 반대로 뭐는 놀라워 들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은 우리들 동일에게 대우하는 소설이다. 이인화(영문학 비평가 학자)
보다 보람있는 삶 신선한 시각 신이현 장편소설
숨어있기 좋은 방
삶의 신비, 나이테적 질문으로 가득 찬 소설!
주인공 윤이금, 이 계에은 8년의 내면에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갖가지 가장과 위선을 통찰한 끝에 도달한 나이테적 진실이 존재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값 5,000원